



협회소식

NEWS

축산업 자조금법 청원입법 작업 본격 착수

- 축산단체, 청원 입법 소개의원 서명 추진

본회를 비롯해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3개 축산 생산자 단체는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을 위한 서명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입법 청원을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고, 청원입법 소개의원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최상백 본회 회장과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장대석 대한양계협회장은 11월 초순 국회를 방문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 청원서와 축산농가들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을 요청했다.

최상백 본회 회장을 대표로 하여 제출한 입법 청원서에서 최 회장은 "현재의 축산업이 농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다이옥신 과동 등을 거치면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등 많은 국내의 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생산자인 축산농민 스스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립적인 자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국회에서 축산업 자조금법을 입법해 줄 것"을 청원했다.

본회 등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마치는 대로 법

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회,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활동 강화

본회는 최근 크게 하락한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본회는 최근 돼지가격 하락이 소비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본회는 지난 9월 돼지고기 요리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한데 이어, 11월중 3,000부를 추가 제작해 축산 박람회 기간중 소비자들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본회는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요리법을 보급하기 위해 박람회 행사기간중 돼지고기 요리 솜씨대회와 돼지고기 요리강습회를 개최하는 한편, 11월과 12월에는 일반여성들을 상대로 돼지고기 요리교실을 개설할 계획이다.

본회는 이밖에도 축산관련기관과 단체, 대학교 등과 연계해 돼지고기 소비홍보 활동과 시식회 등 각종 행사를 벌여 소비를 확대해 나가고,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광고 부착을 검토하는 등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본회 축산분뇨처리 대책위원 해양부 항의 방문

-축산분뇨 해양투기 규제 강화 입법 철회 요구

본회는 해양수산부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축산분뇨처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했다.

본회 축산분뇨처리대책위원회(위원장 : 최희태 부회장)는 지난 10월28일 윤상익(여주지부장), 박종우(청도지부장), 박삼곤(김해지부장), 남성현(아산지부장)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의 축산분뇨 해양투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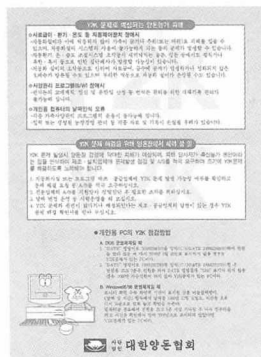
이날 대책위는 해양부의 해양투기 규제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축협과 농협, 축산연과 연계해 합동건의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회의를 마치고 해양수산부를 항의방문, 축산분뇨 해양투기 처리기준 BOD 4,000ppm 이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회 '양돈장 Y2K문제 해결 리플렛' 1만부 제작

- 85개 시군 지부(지회) 통해 양돈농가 배포

2000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는 양돈농가들이 Y2K문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1일 "양돈장 Y2K문제 해결 리플렛" 1만부를 제작, 85개 지부(회)를 통해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하였다.

이 리플렛에는 ▲Y2K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양돈설비·장비 ▲Y2K문제로 예상되는 양돈농가 피해 ▲Y2K문제 해결을 위해 양돈장에서 해야 할 일 ▲개인용 PC의 Y2K 점검요령 ▲Y2K문제 해결 상



담처 등이 알아보기 쉽게 구분되어 수록되어 있다.

본회는 리플렛을 통해 "Y2K문제로 자동화 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가축이 굶거나 추위(또는 더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히고 "특히, 자동환기, 온습도 조절시스템 오작동시 새끼돼지는 물론 성돈 등에서도 질식사나 일어나 집단폐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Y2K문제는 자동제어방식의 모든 축산 자동화설비와 경영프로그램 등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축산농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제조·공급업체에 문제 해결 조치를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본회, 제4·5차 돼지고기 요리교실 개최

-11월 20일부터 소비자 1,200명 대상 요리교육

본회는 조리사와 영양사 등 단체급식 종사자와 가정주부 등 일반여성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요리방법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확대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20일 제4차 국산 돼지고기 요리교실을 개최하고, 12월20일부터는 제5차 요리교실을 개최한다.

(사)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의 주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소재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되는 이번 4,5차 요리교실은 각각 하루 120명씩 모두 1,2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며, 하루에 3종류씩 5일동안 15종의 조리법을 배우게 된다.

제4차 국산 돼지고기 요리교실은 11월20일, 27일, 12월4일, 11일, 18일 10:00~13:00까지 3시간씩 교육이 실시되며, 제5차 요리교실은 오는 12월20일부터 24일까지 14:00~17:00에 실시된다. 한편, 돼지고기 요리교실은 96년 10월, 97년 4월, 98년 5월에 개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신청문의 : 본회 홍보부 (02)553-3942, (사)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 (02)833-1623/4

본회, 「우리축산물 요리솜씨대회」 주관



본회 주관으로 지난 11월 13일 COEX에서 열린 '우리축산물 요리솜씨대회'가 전문요리사 및 가정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의 열띤 호응속에 개최되었다. '99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행사기간중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우리 축산물 요리솜씨대회에는 돼지고기부문, 쇠고기·우유부문, 닭고기·계란부문에서 총 240점의 요리가 참가했는데, 이 중 각 부문별로 15점씩 45점이 본선에 올라 요리솜씨를 겨루었다. 심사결과 돼지고기 부문에서 최우수상은 이영수씨(서울 용산)가 출품한 '돼지고기 오색강정'이 차지했으며, 농림부장관상과 상금 1백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상에는 신유자씨(돼지고기 구이와 치즈)와 박소연씨(돼지고기 삼겹살 별미조림)가 수상했으며, 여경현씨(돼지고기 오색선), 김선영씨(돼

지족 강정), 조현경씨(돼지고기 된장양념구이와 파인애플)가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소비자단체, 돼지고기 안전성 감시 활동 강화

- 양돈농가, 비육돈 후기사료 반드시 급여해야

지난 8월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대표 : 김용덕)가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돼지고기 잔류항생물질 및 합성항생·항균제를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을 의뢰하는 등 소비자 단체들의 돼지고기 안전성에 관한 감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식생활안전시민운동본부는 검사결과에서는 모든 샘플이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돼지고기의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최상백 본회 회장은 이와 관련, "O-157 파동과 다이옥신 파동 예에서 보듯이 식품의 안전성은 이제 전세계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한 나라의 산업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비육돈 후기사료급여 등 돼지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돈농가들과 가공·유통 종사자들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만 양돈협회 방청천 사무국장 내협

대만 양돈협회 방청천 사무국장(비서장)이 지난 10월19일 본회를 방문, 노영한 전무이사과 양국의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은 대만의 돼지구제역 발생에 따른 박멸정책 추진상황과 WTO 뉴라운드가 세계 및 양국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노영한 전무와 방청천 사무국장은 양국의 양돈 협회간 정기교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

고, 빠른 시일내에 양 단체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정보교환과 교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본회 17개 지부 박멸기금 추가 납부

본회 회원들의 박멸기금 납부대열이 줄을 잇고 있다. 11월6일 현재 박멸기금을 납부한 전국 본회 지부 수는 32개소이며, 계속해서 박멸기금 납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27일 이후 박멸기금을 추가로 납부한 지부는 경기 김포지부 200만원, 양평지부 210만원, 파주지부 200만원, 화성지부 200만원, 충북 괴산지부 210만원, 충남 서산태안지부 100만원, 예산지부 220만원, 전남 광주장성지부 200만원, 경북 영일포항지회 100만원, 청도지부 250만원, 경남 고성지부 200만원 등이며, 경남 의령지부는 100만원을 추가 납부해 200만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지난 11월3일 이후 추가로 박멸기금을 납부한 지부는 경기 평택지부(지부장 박종필) 280만원, 양주지부(지부장 최동희) 200만원, 경북 영주봉화지부(지부장 이기홍) 200만원, 충남 당진지부(지부장 송형식) 100만원, 충남 청양지부(지부장 이창영) 50만원이다. 또 일반 회원인 춘천 정홍걸씨가 20만원, 송강축산이 30만원을 납부하였다. 11월16일 현재 모두 5천4백80만원이 모금되었다.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 사직



노영한 전무

본회 노영한 전무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1월 6일부로 사직하였다. 노영한 전무이사는 지난 88년 5월부터 11년6개월간 본회 전무이사직을 맡아 왔으며, 본회와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전북도협의회, 방역전담요원 교육 실시

본회 전북도협의회(회장 : 최희태)는 지난 11월 5일 축협전북도지회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도 운영사항 및 도협의회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도협의회에서는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방역단장 및 방역전담요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방문시 필요한 신분증을 제작하였다.

김해지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

- HC박멸 모금동참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본회 김해지부(지부장 : 박삼곤)은 해양수산부의 축산폐수 해양투기 규제강화 입법 추진과 관련, 양돈농가들을 상대로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삼곤 김해지부장은 "축산폐수 해양투기 처리 기준이 BOD 4,000ppm이하로 규제될 경우 해양투기는 사실상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양축농가는 시설비 부담으로 축산업을 폐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명운동 전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해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돼지콜레라 박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박멸기금 모금 동참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포중이다.

리플렛에서 박삼곤 지부장은 기금모금에 양돈인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과 규모별로 1,000두 이하 사육회원은 10,000원 이상, 10,000두 이상 사육농가는 100,000원 이상 자율 납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문경지부, 현판식 및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

본회 문경지부(지부장 : 윤희수)는 지난 10월26일 지부 사무실에서 관내 양돈관련 기관·단체인사와 양돈농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경시 최종국 부시장과 유진현 본회 경북도협의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양돈농가들은 김병호 돼지콜레라 비대본 박멸요원의 선창으로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북 봉화지부, 창립총회 개최



김창돈 봉화지부장

경북 봉화군 봉화양돈계 회원 22명은 지난 11월11일 양돈협회 봉화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창돈씨를 초대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봉화지부가 설립승인을 받으면 본회 지부(지회)수는 86개로 늘어난다.

김창돈 초대 지부장은 현재 봉화읍 적덕리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다. **양돈**



돼지콜레라 비대본 소식

돼지콜레라 근절 2단계 전국 순회 교육 실시

-11월 10일부터 10개 지역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농가 참여의식 제고와 방역홍보를 위해 전국 각 도별 양돈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방역교육이 실시되었다. 돼지콜레라 비대본은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시도의 협조를 얻어 지난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방역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포천을 선두로 지난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역당 150명씩 총 1,600명의 양돈인이 교육을 받았다.

정착촌 돼지콜레라 채혈검사 실시

- 비대본 전북도본부 돼지 3,218두 채혈

돼지콜레라 비대본 전북도본부가 전북지역에 특히 많은 정착촌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 채혈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본부는 지난 11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합숙을 하면서 4명이 1개조로 5개 방역팀을 구성,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익산시 왕궁면 정착촌 357호 농가의 돼지 3,218두에서 채혈하여 검사를 의뢰했다. 또 11월15일에도 4인 1개조로 5개팀을 구성, 김제시 용지면 소재 정착촌(신암리, 신흥리, 비룡리) 77농가 670두를 채혈하는 등 그동안 꺼려